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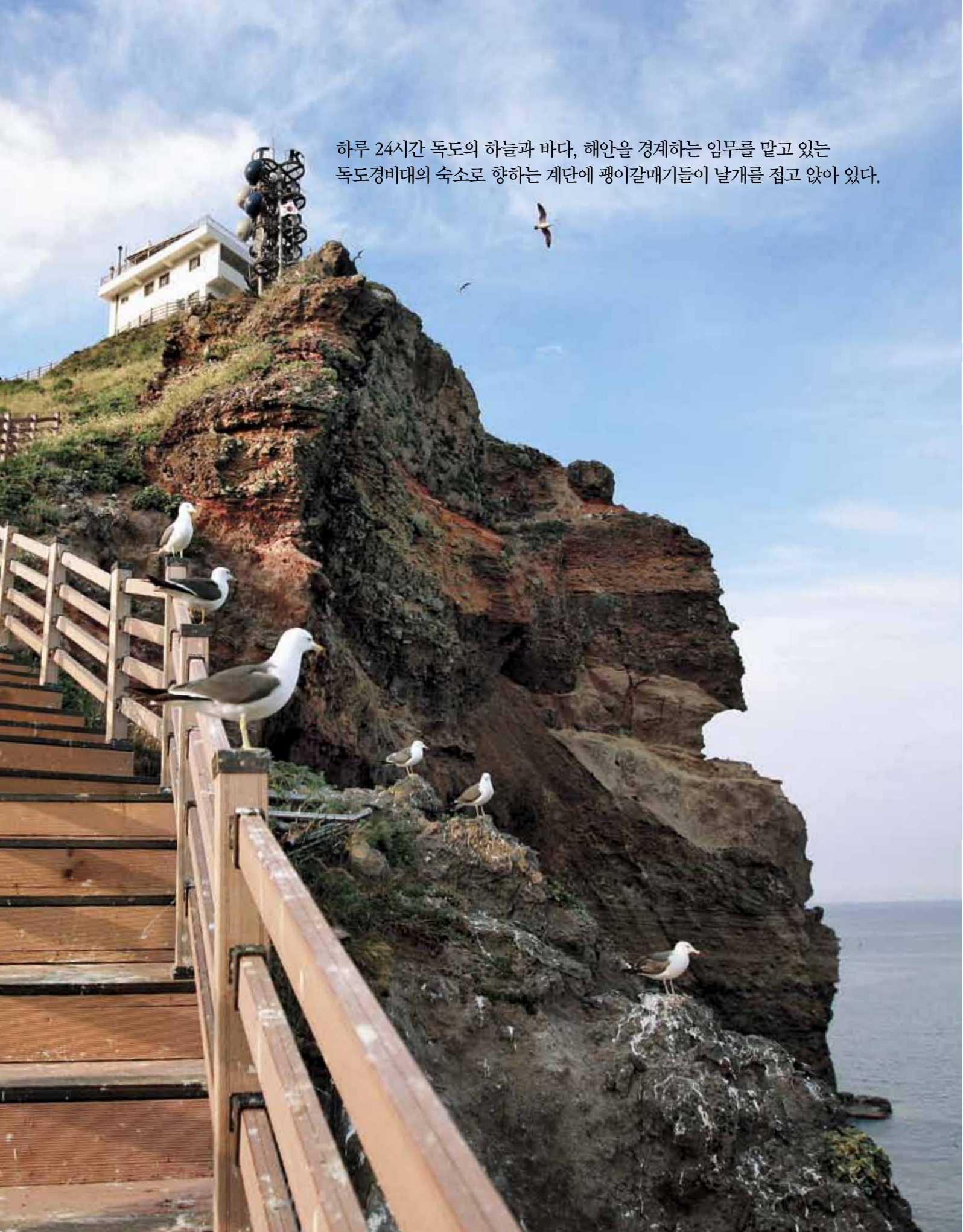
2박 3일  
독도 탐방기 | **독도**  
한국의 땅  
'살아있는 자연박물관'

독도는 한반도 동단의 바위섬이다. 동도와 서도를 중심으로 80여 개의 섬들이 울망줄망 모여 있다. 동해 너머 일본의 끊이지 않는 야욕과 망발 때문에 한국의 섬 중에서 가장 큰 관심과 애정을 받고 있다.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우리 국토의 막내 섬, 독도의 비경과 못 생명을 소개한다. 사진·글 성연재 사진부 기자



독도의 영원한 주인은 대한민국이지만 현재 세입자는 새들이다. 독도는 철새들의 주요 이동경로 상에 있어 계절에 따라 다양한 조류를 볼 수 있다. 특히 봄부터 여름까지는 독도의 바다와 하늘이 온통 꿩이갈매기의 잿빛 날갯짓으로 물든다. 꿩이갈매기가 쏟아내는 울음소리와 배설물이 섬을 점령하다시피 한다. 토종 조류로 부리와 꽂지깃 끝이 검은색인 꿩이갈매기는 번식기에 1만~2만 마리가 독도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루 24시간 독도의 하늘과 바다, 해안을 경계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독도경비대의 숙소로 향하는 계단에 갯이갈매기들이 날개를 접고 앉아 있다.



**독**도에서 보낸 2박 3일. 독도는 일반 여행자들처럼 30분만 머물러서는 결코 그 비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가 없다. 이번에 독도를 다녀온 뒤 내린 결론이다. 30분간만 독도에 접

안, 독도 땅을 밟아서는 결코 참모습을 볼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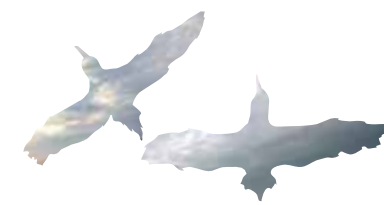
정말 우연한 기회에 독도를 다녀올 기회가 생겼다. 엄밀히 말하면 독도에 '체류'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실상 독도에 체류할 기회를 잡은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심지어는 대통령마저 쉽게 머무를 수 없는 곳이 독도이고 보면 이곳에서 며칠을 지낸다는 것은 큰 행운이었다. 수많은 언론사가 독도에서 체류하며 진행하는 취재를 요청해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독도 아카데미에서 대학생 100여 명을 데리고 독도로 향한다는 것을 알고 이들과 함께 독도로 들어갔다. 일단 동해항으로 버스를 타고 간 뒤 울릉도행 배에 올랐다. 울릉도에서 1박을 한 뒤 다음날 오후 배로 독도로 들어갔다. 때마침 남아공 월드컵 기간이어서 학생들이 붉은 악마 복장으로 독도에서 응원을 펼치는 장면을 찍을 수 있었고 부두에서 즉시 마감을 했다.

부두에서 느린 무선 모뎀으로 마감을 하고 나니 학생들과 관광객들이 독도와의 잠깐의 만남을 뒤로하고 배에 오른다. 그들은 독도 땅을 밟았다고 하지만 결국 독도 부두의 콘크리트만 밟은 것이다. 약 30분 미만의 시간만이 주어질 뿐이다. 독도와의 대면을 끝낸 사람들은 배에 서둘러 타고 아쉬워하며 저 멀리 멀어져 갔다.

독도에 남은 타사 사진기자 2명과 함께 일단 거처를 구해야만 했는데, 텐트까지 가져간 우리는 어민숙소 관계자들의 숙소인 컨테이너에 머무를 수 있었다. 새들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가파른 계단을 통해 서도 위로 올라가야만 한다. 그 계단은 거의 수직에 가까운 벼랑 끝에 붙어 있는데 그 계단을 처음 본 순간 겁이 덜컥 났다. 순간 독수리 요새, 나바론 요새, 빠삐용 등의 영화 장면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 가파른 계단을 새벽에 올라야만 하는 것이다. 서도의 계단은 가파른 테다 중간마다 밧줄이 꿰인 곳이 있어 극히 조심해야만 했다. 자칫 잘못하면, 그대로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질 듯했다. 새벽에 오르는 이유는 일출을 보기 위해서였다. 일출의 빛이 다르고 일몰의 빛이 다르다. 그 색감이 자아내는 오묘함 때문에 새벽 동트기 전 벼랑 끝에 매달려야만 했다.



울릉우체국이 관리하는 독도 우체통의 모습. 독도 우체통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상징물로 발송 우편물은 두 달에 한 번씩 수거된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최동단임을 알려주는 이정표. 1997년 독도 집안시설(물량장) 준공 기념으로 설치됐다.

### 괭이갈매기의 섬 독도, 생태자원의 보고

새벽 여명이 밝았다. 운이 나쁘게도 그리 좋은 여명을 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갑자기 동도 왼편 구름 사이로 빛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건 구름으로 가득한 하늘 한 곳이 트여서 바다로 빛이 내리는 모습이었다.

서도는 온통 괭이갈매기 천지였다. 괭이갈매기의 번식기여서 그런지 바다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뾰족한 섬, 독도로 모조리 물려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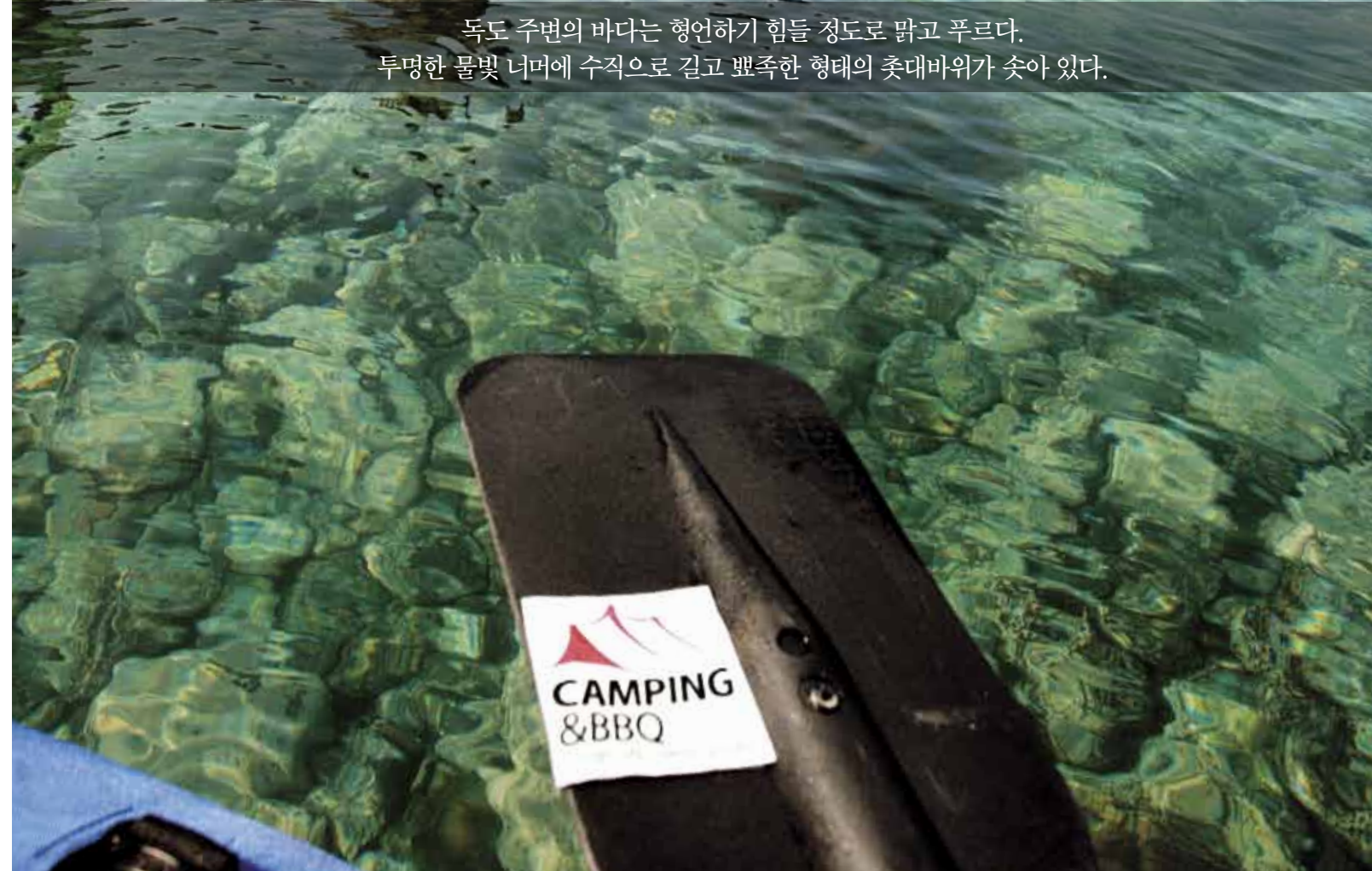
대구환경청은 최근 7월 개최한 독도 생태 주권에 관한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독도에 서식하는 생물이 총 760여 종이며 조류 160종, 식물 110종, 곤충 127종, 해양무척추동물 368종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 많지 않다. 이 수치는 문헌 등을 통해 식재되었던 식물 등을 모두 합친 것일 뿐, 실제로 남아 있는 생물종과는 큰 차이가 있다.

유독 식물 가운데 사라진 종들이 많은데, 특히 무궁화와 소나무 등은 과거에 일부러 심었으나 다 죽어 없어졌다. 무궁화가 상징성을 띠는 식물이지만 독도의 거센 기후를 견디지 못하고 소멸한 것이다. 또한 조류의 경우도 잠시 머물렀다 가는 종류 등을 합친 것이라 그 새가 자자손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철새 중에는 독도를 단순한 중간 기착지 정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그해 발견된 조류가 단순히 표류해서 있는지, 뿌리를 내리고 사는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조류가 정확하게 몇 종이냐 규정할 수 없는 이유다. 실상 괭이갈매기 이외에는 눈을 씻고 봐도 다른 새들을 구경할 수 없었다.

이날 오후에 서도에서 동도로 발길을 돌렸다. 사실 독도를 이루는 동도와 서도 중 서도가 훨씬 아름답다. 그러나 그 사실은 서도에 머무르면서는 알 수 없고 동도에서 바라봐야 비로소 알 수 있다. 동도도 멀리서 보면 서도에 비해 멋지지 않지만 정상에 오르면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섬이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절대 볼 수 없



독도 주변의 바다는 형언하기 힘들 정도로 맑고 푸르다. 투명한 물빛 너머에 수직으로 길고 뾰족한 형태의 쫓대바위가 솟아 있다.





독도의 바위섬들은 저마다 모양과 사연에 따라 이름이 붙어 있다. 큰가재바위, 지네바위, 미역바위, 숫돌바위, 부채바위, 얼굴바위 등 이름이 다양하다. 독도리 산25번지는 3개의 동굴이 있다고 해서 삼형제굴바위로 불린다. 카약을 타고 동도와 서도 사이에 있는 '삼형제굴바위'의 속살을 엿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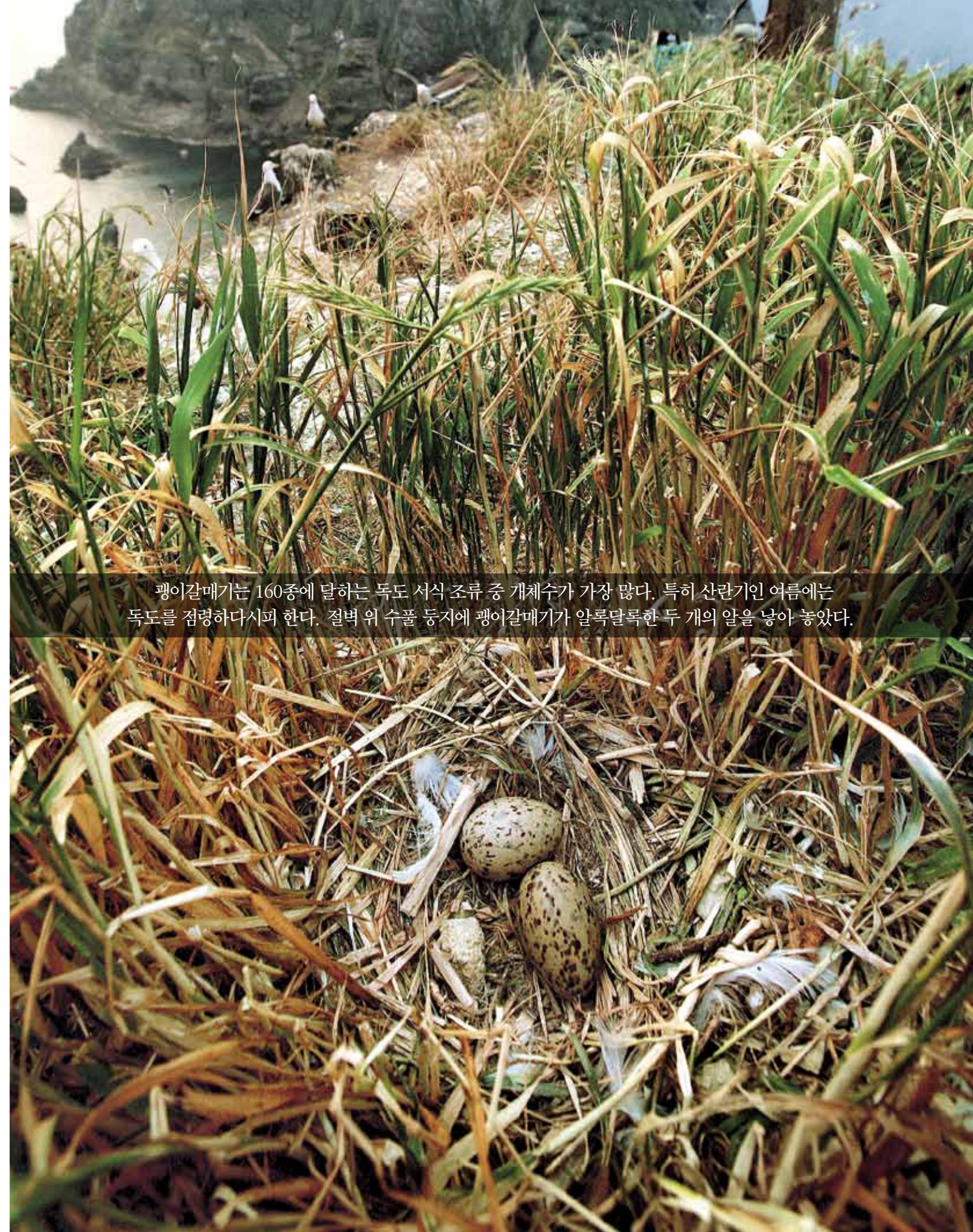
독도에는 사람과 함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한다. 올해 여름 독도에서 부화해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는 팽이갈매기 새끼(위 가운데), 먹이를 물색하는 황로(아래 왼쪽), 희귀조로 분류되는 '진홍가슴'(아래 오른쪽) 등을 만날 수 있다.



는 진귀한 장면을 구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도 헬기장 바로 옆에는 바로 거의 수직으로 바다 밑까지 향해 있는 분화구가 자리를 잡고 있다. 백두산 천지와 한라산 백록담보다는 훨씬 작은 분화구이지만 바다 밑까지 뚫려 있다. 저 멀리 멋진 서도의 모습과 장엄하기 이를 데 없는 동도의 분화구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없다니…….”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장엄한 독도의 비경들을 촬영한 뒤 바로 '진홍가슴'이라는 새를 찍을 수 있었다. 진홍가슴은 우리나라에서는 구경하기 힘든 철새로 독도를 중간 기착지로 삼아 잠시 쉬고 가는 녀석이었다. 웬만하면 한자리에 진득이 머물러 먹이를 구하면 좋으련만 잠시도 가만히 있는 법이 없는 녀석이라, 단 두 장을 찍고 바로 놓쳐버렸다. 그래도 희귀조를 찍은 게 어디인가.

그렇게 진홍가슴 사진을 찍고 나니 다음으로는 백로와 황로 등 다양한 새들이 눈에 들어왔다. 백로와 황로는 희귀한 새는 아니지만 동해의 뾰족한 섬 독도에 있다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다. 황로는 독도 등대 근처를 어



팽이갈매기는 160종에 달하는 독도 서식 조류 중 개체수가 가장 많다. 특히 산란기인 여름에는 독도를 점령하다시피 한다. 절벽 위 수풀 등지에 팽이갈매기가 알록달록한 두 개의 알을 낳아 놓았다.



독도 서도에 있는 어민  
숙소로 이어진 계단은  
경사가 매우 가파르다(왼쪽).  
독도 접안시설에서 동도  
정상까지 연결된 화물용  
케이블카(오른쪽).



슬렁거리며 마치 애완조처럼 굴고 있었다. 누구도 괴롭히는 사람이 없으니 마치 애완동물처럼 주위를 서성였다. 어느덧 해가 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붉게 변한다. 저 멀리 있는 서도를 배경으로 붉은 노을이 물드는 장면이 눈에 들어온다. 눈으로 아름다운 일몰을 지켜보며 셔터를 연방 눌러댔다.

어느새 해는 지고 곧 어둠이 찾아왔다. 대구환경청 관계자의 말대로 혹시나 야생동물이라도 볼 수 있을까 싶어 동도 헬기장 바깥쪽에 2인용 산악 텐트를 치고 망원렌즈를 텐트 안에 설치했다. 사실 독도는 컨테이너도 날려버릴 만큼 강한 바람이 불어 꼭대기에 텐트를 설치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다. 취재를 위해 잠시 설치하기로 하고 바깥쪽을 응시하다 너무 괴근해서 의식을 잃고 말았다. 뭔가 차가운 기운이 불을 때리는 것이 느껴져 눈을 떠 보니 동이 뜨고 있었다. 텐트에 플라이를 설치하지 않고 이너텐트만을 폈더니 이슬이 맺혀 불을 때린 것이다.

독도를 나가는 날이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진을 찍으려 했는데 물건을 하역하는 기중기가 움직여 배 출발 시간보다 훨씬 일찍 바다 쪽으로 내려가야만 했다. 바로 카약을 바다에 띄우고는 삼형제굴바위로 향하기 시작했다. 흔히들 카약에서 보는 시각이 땅 위에서 보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고 한다. 또 다른 각도에서 촬영할 수 있을 듯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맑디 맑은 동도와 서도의 한중간에서 독도의 또 다른 비경이 눈에 들어왔다.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털 클리어(Crystal Clear)', 수정처럼 깨끗한 바닷물과 환상적인 독도의 비경이 펼쳐졌다. 바다는 독도 사람들의 표현대로 '장관처럼' 고요했다. 쉴 새 없이 셔터를 눌렀다.

저 멀리서 누군가 배가 들어온다고 손짓을 한다.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 중 삼분의 일은 성난 과도 때문에 접안조차 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 먼 길을 오로지 독도를 보기 위해 찾은 관광객들은 독도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다. 접안을 위해서는 방파제를 설치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

독도는 동해상에 떠 있는 그냥 하나의 섬이 아니다. 독도는 우리에게 영토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한일간 외교적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잠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뿐, 평소에는 잊혀 있는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도에 대한 접근성 확보가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멀지 않은 장래, 아니 이른 시일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영토의 시비가 없는 독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Y

독도경비대 숙소가 있는  
동도 위로 찬란한 아침 햇살이  
내려오고 있다. 독도는 우리  
영토에서 일출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이다. 한민족의  
앞을 열어가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호시탐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삼으려는 일본의 야욕에  
맞서 차가운 지혜와 뜨거운  
관심으로 보듬고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미래자원이다.

